

4 인간구원에 관하여 칼빈과 웨슬리의 대화

유태주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조직신학

1. 시작하는 말

성서적 구원론에 도전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신학의 등장은 성서적이고 정통적인 구원론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21세기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을 교리적으로 온전히 정립하는 좋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기독교의 핵심진리에 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교적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복음을 지킨 칼빈(John Calvin)의 구원론과, 18세기 인본주의 물결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웨슬리(John Wesley)의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을 대립개념으로 생각하여 왔다. 즉, 칼빈의 구원관의 특징은 예정론에 기초한 칭의론 중심으로 보고, 웨슬리의 구원관은 기독교의 완전교리에 근거한 성화론으로 대립시켜 구분하여 생각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통합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차이점을 과장되게 확대 왜곡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통신학의 구원

관에 대한 오해와 상호 분열현상은 비성서적 구원관의 기저를 만들어 주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은 모두 본질적으로 성서적이며 사도적인 구원관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칼빈이 예정론(豫定論)을 강조한 시대적 배경은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Humanism)적 구원관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웨슬리 역시 무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이 웨슬리 당시의 교회에 큰 도전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화론(聖化論)을 말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인 예정론에 기초한 칭의론(justification)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책임 측면인 성화론(sanctification)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웨슬리 역시 인간의 책임 측면인 기독교자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중시한 성화론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데서 비롯된 칭의(justification)에 기초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칼빈과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과 인간의 책임의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산 믿음(living faith)의 신학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다. 이러한 성서적이고 사도적이며 산 믿음의 구원관은 신앙과 신학의 중심 진리인 동시에,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목표(scopus fidei)를 잘 제시해 주는 올바른 신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 진리를 구원에 두며, 믿음의 목표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함 받아 천국에 이르러자 하는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함 얻어 영생을 얻음과 동시에 지상에서 사랑과 공의의 직분을 감당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세기 말 칸트 이래 인본주의 신학은 신학의 중심 진리를 구원에서 떠나 도덕종교로 변질시키더니, 믿음의 목표 역시 죄 사함 받아 거룩함 얻어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벗어나 거룩함의 열매인 도덕과 윤리에 믿음의 목표를 둬으로써 그들은 구원과 함께 지상에서 바라는 도덕과 평화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은 구원의 신학인 동시에 평화회복의 신학이기도 하다.

2. 성경적 구원론에 도전한 인본주의적 신학의 실패는 성서적이고 정통적인 구원론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칸트(I. Kant, 1724-1804) 이래 인간이성(modernism)에 의존하던 신학사조는 실패하였다. 서양사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래(AD 313) 기독교 신학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칸트라는 거짓 사상가의 등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도덕적 완성의 모델 내지는 도덕종교 철학으로 왜곡되었다.¹⁾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사람이 되어 오신(딤후 2: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중보자임이 부인되었다. 이후 자유주의(自由主義) 신학이 칸트를 추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인류구원의 길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500여 년 만인(AD 313 이래) 18세기에 서구의 신학계는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왜곡된 신학사상은 서구 국가를 19세기에 노예사냥과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하였다.²⁾ 19세기에 서양인들은 서아프리카 지역

1.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1973, 신옥희 역, 「理性的 限界 안에서 的 宗教」(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94), 191-193.

2. 한철하,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으로 21세기를 살립시다.」 제37차 한국복음주의 신

에서만 하더라도 2000만 명(그 중 1/3이 여성)의 젊은이들을 노예사냥을 하여 유럽대륙과 신대륙에 인신매매(人身賣買)하였다.³⁾ 그리고 20세기에는 구원의 복음을 떠난 서구인들이 세계를 향하여 세계 제1차대전과 2차대전인 살육전쟁(殺戮戰爭)을 일으켰다. 명목상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서 한국과 동북아를 침략케 하였다. 독일도 타락한 기독교 국가로서 유대인을 600만 이상 살육하였다. 한마디로 칸트의 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본주의(人本主義)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인이 되더니, 오히려 인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아가 온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이성중심주의 신학은 실패하였다.⁴⁾

이성중심주의 신학의 실패는 인간이성에 대한 불신과 함께 포스트모던(Post-modernism) 신학사조(神學思潮)를 추구하면서⁵⁾ 모더니즘의 것보다 더 강력한 종교다원주의적(宗教多元主義的)인 배도의 구원관이 교회와 신학계에 침투하고 있다. 서구 신학(西歐神學)은 칸트 이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떠나더니, 동양의 힌두교, 불교, 유교 등의 혼합주의(混合主義) 종교사상에 호기심을 갖고 종교다원주의라는 배도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서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칸트를 비롯한 계몽주의 철학(啓蒙主義哲學)을 혼합하여 신학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동양철학과 종교사상으로 신학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계몽주의 철학처럼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서구 철학을 신학에 차용하다 말씀을 약화시키며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도덕종교를 추구하다 오히려 도덕적 혼란과 죽음을 초래하였다. 동양철

학회 논문발표회(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1. 4. 28), vi.

20세기 초까지 구원의 복음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를 거의 식민지화시키고, 2차대전 전까지는 사실상 아시아와 전세계를 식민지화하였다. “식민지,” 『학원세계백과사전』(서울: 학원출판공사, 1994), 512-514.

3. 강석인, 『만리장성에서 아우슈비츠까지』(서울: 고려원, 1996), 252-253.

4. 한철하, op. cit. ix, “우리가 서양신학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신앙이 이성의 한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신앙이 신앙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5. Alister E. McGrath, *A Passion for Truth the Intellectual Coherence of Evangelicalism*(England: Apollon, 1996), 163-164.

학과 종교사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혼합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등 동양종교철학의 중심사상도 서양의 이성중심주의 못지않게 인본주의(人本主義)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합일을 추구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는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 옛 뱀 마귀가 하와에게 제시한 ‘하나님 같은 인간’이라는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이라 하겠다. 바로 이 사상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 대신 바쳐 죽지 않으셨더라면, 온 인류가 영원히 멸망 받을 악한 사상인데, 안타깝게 도를 추구한다는 일반 종교까지도 이러한 사상(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을 신격화시키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된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기독교 진리를 제외한 세상의 일반 종교는 그 선한 목적과 일부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심 사상이 인류의 타락을 초래하였던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차 있기에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사상이 표현 형식상 서구 철학은 이원론으로 동양철학과 종교는 혼합주의(混合主義)로 나타날 뿐이다.⁶⁾

이러한 때 성서적이고 정통적인 구원론의 재정립이 요청된다. 우리는 성서적 구원론의 재확립을, 세계교회를 교권주의와 우상숭배로 분열시키고 수많은 피를 흘린 로마 교회의 종교다원주의적 포용주의 신학도 아니고,⁷⁾

6. 한국칼빈학회 엮음, 『최근의 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40-246.

7. W. M. Abbott, S. J., *The Documents of Vatican II*(Western Publishing Co., 1996), 660. 로마 교회는 중세부터 이방종교 사상을 은밀하게 도입하더니,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종교들을 포용주의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연 것이다. 이는 성경에 명백히 선언되었고[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

19세기와 20세기를 살육의 피로 물들게 한 자유주의 신학도 아닌, 사도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에서 찾고자 한다. 칼빈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구원론을 정립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16세기와 18세기에 21세기를 대비한 복음의 역군이요 개혁자들이기 때문이다.⁸⁾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전해 준 구원의 핵심 진리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구원에 있다(요 3 : 16). 이 핵심 진리는 바울(Paul)의 핵심 진리였다. (고전 1 : 22-24 ;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거스틴(Augustinus)도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하여 재확인하였다.⁹⁾ 루터(Martin Luther)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산 신앙과 신학을 16세기의 교회에 불어넣었다.¹⁰⁾ 칼빈(John Calvin)은 루터가 물려준 기독교신앙의 핵심을 성화의 문제와 연관시켜 더욱 체계화하였다.¹¹⁾ 그리고 웨슬리(John Wesley)는 모라비안¹²⁾을 통하여 칼빈의 신

니 곧 사람이신(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 딤편 2 : 5] 경고한 말씀대로(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 : 3)이다.

8. B. K. Kuiper, *The Church in History*(Eerdmans, 1982), 189-202, 268, 303.

9. B. K. Kuiper, *The Church in History*(Eerdmans, 1982), 35-39.

10. Ibid., 128, 151.

11. Ibid., 189, 202.

12. 1737년에 웨슬리 형제는 복음전도회(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를 대표하여 선교를 위해 조지아로 떠났다. 미국으로 가는 항해 중에 그리고 조지아에서 웨슬리 형제는 몇몇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났다. 웨슬리 형제는 자신들의 선교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1738년 영국으로 돌아왔다. 웨슬리 형제는 모라비아 교도인 피터 벨리의 영향을 받았다. 3일 사이에 그들은 각각 생명력 있는 기독교적 경험을 하였다. 찰스는 성령강림절에, 요한은 1738년 5월 24일에 경험했는데 그날 요한은 그의 가슴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은 런던 올더스케이프에서 가진 모임에서 생겼던 일인데, 거기서 요한은 루터의 로마서 서문 중의 한 내용을 들었다. 이 사건은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학을 삶에 적용하는 데 주력하였다.¹³⁾

이렇게 칼빈은 성서적이고 사도적인 구원신앙과 신학을 16세기 개혁으로 꽃피웠고, 웨슬리는 18세기 인본주의적 과학주의 시대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세계관에 손색이 없도록 칼빈의 구원신학과 신앙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신학에서 그 차이점과 함께 일치점을 알아봄으로써 본질적으로 양자는 일치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칼빈과 웨슬리 신학의 차이점

1)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교리로 구원론의 기초를 삼는다. 그러나 칼빈은 예정교리를 구원론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1)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신학적 배경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로마 교회가 교리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근본교리가 위협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칼빈은 예정교리를 강조한 것이다.¹⁴⁾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은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영국의 정치가)가 땅과 바다에서 이룬 모든 승리보다 영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었다. Lion Publishing ed., *The History of Christianity*(Lion Publishing, 1977),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9), 447.

13. Ibid., 262, 303.

14.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197.

받는 것이라 하며(『기독교강요』 최종판 3권 1-20장까지)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기독교강요』 3권 21-2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그의 자비의 원천과 같은 것이며, 그 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많은 유익을 준다고 본다. 칼빈은 이 교리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그 교리는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를 알도록 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며, 그리고 참된 겸손을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¹⁵⁾ 따라서 칼빈은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를 합당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느끼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¹⁶⁾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다.

“대개 이 사람들은¹⁷⁾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에 대하여 제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그가 보시기에 악한 의도와 불경에 빠지게 될 성향을 지닌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어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들은 선택을 예지라는 취장에 덮음으로써 그것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¹⁹⁾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행위에 대한 고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15. Ibid., 148-149.

16. Inst., III.21.1.

17. 여기에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18. Inst., 22.1.

19. Inst., III.22.1.

말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행위(공덕) 사상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우리로 …… 그 앞에 기록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라는 말씀을 통해서, 칼빈은 우리가 기록하게 되게 하시려고 택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한다. 경건한 자들의 기록함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 때문에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는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칼빈은 지적한다.²¹⁾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선행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로마 교회의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모순을 드러내기 위하여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 위에 교권 내지는 교황권을 두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이교적이며 비성서적 구원관인 마리아 중재자성, 고백성사 등이 들어왔다. 이러한 때 칼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함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성서적 구원관은 예정교리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예정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논리적 추론이나 상상을 금하고 있다. 그는 성서적 구원관 확립을 위하여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두 가지로 금한다.

20. Inst., III.22.3.

21. Inst., III.22.3. “그들은 주께서는 과거의 공로에 대해서는 선택의 은혜로 상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미래의 공로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신다는 식의 핑계를 자주 둘러 대지만, 이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기록하게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동시에 그들에게 있게 될 그 기록함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첫째가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에 제시된 이외의 것을 알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려는 것이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고 말한다.²²⁾ 그러므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는 빛은 주의 말씀뿐이다.”²³⁾라고 칼빈은 말한다.

둘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음도 선택교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태도를 칼빈은 경계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다. 암초를 피하듯이 그들은 이 문제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지성에 관한 확실한 법칙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²⁴⁾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예정교리를 주장하므로, 성경에 가감하는 구원관을 말하는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구원관 회복에 공헌하고 있다.

칼빈은 웨슬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구원론(칭의론)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조금도 인간의 공로나 그 무엇도 개입되지 못한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을 강조하는 도구로서 칼빈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정론을 말한다. 칼빈은 그의 예정교리를 통하여 인간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22. Ibid., 149-150. Inst., III, xxi, 2.

23. Inst., III, xxi, 2.

24. Inst., III, xxi, 3.

(2)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칼빈의 예정론

칼빈이 예정론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함을 말하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서 온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²⁵⁾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취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기쁨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보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바울은 명쾌하게 증언한다. 백성 중 남은 자들의 구원이 값없이 주신 선택에 돌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직 스스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빛지신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을 밝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문호를 폐쇄하여 이 교리를 맞보려 해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악행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외의 것으로써 우리를 실제로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는 교리는 없기 때문이다.”²⁷⁾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바른 인식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포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무수한 위험과 함정과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신 것은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신다

2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ie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and XX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III, xxi, 1.

26. Inst., III, xxi, 1.

27. Ibid.

(요 10 : 28-29).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세 가지 은혜(즉,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영광, 진지한 겸손 : 이 모든 은혜가 예정교리 인식에서 깨달아진다.)를 모르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우리 사이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준다.”²⁸⁾

이와 같이 절대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예정교리를 다루는 목적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과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위함임을 밝힌다.

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선택

칼빈은 인간구원의 문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됨을 칼빈은 말한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에 관한 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비난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공혹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은 모세가 사용한 두 마디의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난’이라는 단어는 ‘은총을 베풀다’, ‘또는 값없이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다’를 뜻하며,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공혹히 여긴다’를 뜻한다.²⁹⁾

② 선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로마서 9 : 16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는 선택을 우리의 근면이나 열심이나 또는 노력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나 달음박질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³⁰⁾

28. Inst., III, xxi. 1.

29. Ibid., 300-301.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하여 “게으름을 피우거나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³¹⁾고 말함으로써 칼빈은 그가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고취된 노력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활기를 넣어 주시는 경우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한편,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우리의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³²⁾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혹에 의한 것으로 결정지어지고, 전혀 인간의 근면에 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할 것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비교하면서 강조한다.³³⁾

③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³⁴⁾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 3 : 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분만

30. Ibid., 301-303.

31. Ibid., 301-303.

32.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킨다.

33. Ibid., 301-303.

34.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 Knight.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80), 168.

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 삼아 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의 목적은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서 받아들이신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엡 1:4).³⁵⁾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이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에 참여된 자가 아니면 천국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수가 없다.³⁶⁾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택함 받음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속임 없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신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와의 사귄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책(계 21:27)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election)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게 됨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옷 입고(롬 13:14) 그 안에서 함께 자라며(엡 4:15), 그가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롬 8:32, 요 3:16)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 모든 자들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인정되고 있는 데 대한 증인이시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리

3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C.C. Vol. XXI, ed. John T. McNeill, tran.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III, xxiv, 5.

36. Inst., xiv, 5.

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떠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일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의 장본인이다.³⁷⁾ 이렇게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칼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교리는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관을 성경대로 재확립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을 배격하기 위한 논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웨슬리의 성화론

(1) 웨슬리가 성화론을 강조하게 된 신학적 배경

웨슬리가 성화론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열매 곧 산 신앙(living faith)를 말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신자의 책임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을 방어하기 위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의 분위기가 믿음을 단순한 지식에 제한시키는 정도의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의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열매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웨슬리 형제가 1743년 5월 1일에 작성한 “연합신도회의 성격, 구성, 그리고 일반 규칙”(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에 잘 나타나 있다. 연합신도회에

37. Inst., III, xxii, 7.

입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는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갈망이 있으면 되었다.³⁸⁾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므로, 열매들로 보여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 모임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구원의 갈망에 대한 증거가 요구되었다. 그 증거는 해를 끼치지 말 것, 선행을 할 것, 모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으로 요약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되 특히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과, 주의 날을 욕되게 하는 것과 그 위에 평일처럼 일하거나 매매하는 것이며, 술취함과 알콜 음료를 매매하는 것과 혹은 극한적인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술을 마시거나 싸움, 말다툼, 음주, 형제 간에 고소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폭언에 폭언으로 맞서거나 매매할 때 많은 말을 하거나 관례를 벗어나 물건을 매매하거나 폭리로 물건을 매매하여, 즉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무차비하거나 혹은 무익한 대화를 하거나 특히 악한 말을 행정장관(혹은 법관)이나 목사에게 할 경우와 남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태도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거나 금이나 값비싼 옷차림을 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빛나간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이 없는 망령된 노래를 부르거나 망령된 책을 읽거나 온유와 관대함이 없거나 귀중품을 땅에 버리거나 적절한 대가 없이 물건을 빌리거나 적절한 지불을 하지 않고 물건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³⁹⁾

둘째로, 선행을 하되 항상 모든 종류의 힘이 닿는 대로 공흠을 베풀 것이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소간에 모든 가능한 선행을 하며, 가능하면 모든

38. <There is one only condition previously required in those who desire admission into these societies, a desire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to be saved from their sins:">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III(Addresses, Assays, Letters),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1), 270. "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 Article 4.

39. Ibid., 270, Art. 4.

사람에게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줌으로,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줌으로,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에게 방문하거나 도와줌으로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떠한 영적 교통이든지 항상 가르치거나 훈계하며 혹은 악마의 광적인 이론들, 즉 "우리의"마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선행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은 발로 짓밟아 버립시다. 선행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 하며, 남에게 최선으로 대하며 물건을 서로 매매하고 사업에 있어서도 서로 도우며, 이러한 일이 더 왕성할 때 세계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근면하고 겸소하여 복음이 비난받을 수 없도록 합시다.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지라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오물과 같이 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데 복종합시다.⁴⁰⁾

셋째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에 참여함으로, 말씀을 읽거나 설명하여 전파함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가정예배와 개인기도를 드림으로, 말씀 탐구와 때로는 금식이나 금욕을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바랍니다.⁴¹⁾

40. Ibid., 270-271, Art. 5 "Secondly, by doing good, by being, in every kind, merciful after their power; as they have opportunity, doing good of every possible sort, and as far as is possible, to all men; to their bodies, of the ability which God giveth, by giving food to the hungry, by clothing the naked, by visiting or helping them that are sick, or in prison; to their souls, by instructing, reproof, or exhorting all they have any intercourse with; trampling under foot that enthusiastic doctrine of devils, that "we are not to do good unless our heart be free to it:" By doing good especially to them that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or groaning so to be; employing them preferably to others, buying one of another; helping each other in business; and so much the more, because the world will love its own, and them only: By all possible diligence and frugality, that the gospel be not blamed: By running with patie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them, "denying themselves, and taking up their cross daily;" submitting to bear the reproach of Christ, to be as the filth and offscouring of the world; and looking that men should "say all manner of evil of them falsely for the Lord's sake."

41. Ibid., 671, Art. 6.

이렇게 웨슬리의 성화론은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의 분위기가 믿음을 단순한 지식에 제한시키는 정도의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의 분위기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열매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또한 무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이 웨슬리 당시의 교회에 커다란 도전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화론을 말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웨슬리는 당시의 부도덕하고 인본주의적이며 명목적인 교계의 상황 속에서 칼빈의 본의를 떠난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가 가지는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경고하며, 획기적인 성화의 단계와 함께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강조했던 것이다.”⁴²⁾ ‘율법주의’도 비성서적 구원관이지만, ‘무율법주의’ 역시 계시록에서 경고한 니콜라 당의 교훈인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1744년 6월 25일 월요일에 작성된 “대화록”(Conversation I)에서 무율법주의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⁴³⁾

도덕폐기론은 믿음을 통해 율법을 무효하게 만드는 교리를 믿는 것이라고 “대화록 I” 제19번 문답은 규정한다.⁴⁴⁾ 이들의 중요한 주장은 20번 문답에 나온 바와 같다.

Q. 20. 그것(도덕폐기론)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은 무엇입니까?

- A. (1)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도덕적 율법(moral law)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덕적 율법)을 준수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기독교인의 자유 중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42. 한상화, 「신본주의 구원론」(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97.

43. Wesley, op. cit., 275. “MINUTES OF SOME LATE CONVERSATIONS BETWEEN THE REV. MR. WESLEYS AND OTHERS: CONVERSATION I, MONDAY,” June 25th, 1744.

44. Ibid., 278. “Q. 19. What is Antinomianism? A. The doctrine which makes void the law through faith.”

- (4) 그것은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속박이거나, 그것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설교자는 선한 행위를 권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권면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권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⁴⁵⁾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폐기론’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경계한 말씀임을 웨슬리는 제21번 문답을 통하여 상기시킨다. 그리고 제22번 문답으로 바울의 의도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Q. 22. 그 말속에 들어 있는 주요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A.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의식으로도 역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모든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⁴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지한 율법은 의식법(ritual law)이지⁴⁷⁾ 도덕법(moral law)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45. Ibid., 278. (20).

46. Ibid., 22.

47. “Q. 25. What law has Christ abolished? A. The ritual law of Moses.” Ibid., 278. (25).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도덕폐기론자들과 같은 방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길을 가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⁴⁸⁾ 주께서도 무율법주의자들인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계 2: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따라서 웨슬리가 성화론을 통하여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무율법주의적인 도덕폐기론이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칼빈이 처해 있던 율법주의적인 상황과 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칼빈과 웨슬리가 신앙과 신학의 중심을 인간구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점이 외형적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시대 상황의 차이일 뿐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2)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웨슬리의 성화론

웨슬리도 칼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구원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러나 웨슬리는 칭의 받은 신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 책임은 성화론으로 나타난다.

성화(sanctification)라 함은 우리가 죄악의 세력과 뿌리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회복됨을 의미한다.⁴⁹⁾ 웨슬리의 성화론은 칭의론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인정된 신자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 산 신앙의 증거로서의 성화론을 말한다. 따라서 칭의와 함께 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가는 우리의 구원은 순간적인 동시에 점진적이다.

48. “Q. 24. What, by being “under the law?” (Gal. iii. 23.) A. Under the Mosaic dispensation. Q. 25. What law has Christ abolished? A. The ritual law of Moses. Q. 26. What is meant by liberty? (Gal. v. 1.) A. Liberty, (1.) From that law. (2.) From sin.” Ibid., 278. (24-26).

49. “by sanctification we are saved from the power and the root of sin, and restored to the image of God.”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Peabody: Hendrickson, 1991), Sermon XLII—Satan's Devices, 509.

성경에서 보여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도 이 구원은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겸손하며 고상하고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원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뭇잎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는 말씀과 같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자라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웨슬리가 바라는 신앙(faith)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through the merits of Christ) 죄 사함 받고(He is freed from sin),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며(He is freed from fear),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으로 의심에서 해방된다(He is freed from fear).⁵¹⁾

(3)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를 심화시킨 웨슬리의 성화론

그리고 사랑은 더욱더 성장하여 마침내 우리가 범사에 머리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15) 이르게 된다.⁵²⁾

50. Ibid., 509: “All experience, as well as Scripture, show this salvation to be both instantaneous and gradual. It begins the moment we are justified, in the holy, humble, gentle, patient love of God and man. It gradually increases from that moment, as a grain of mustard-seed, which, at first, is the least of all seeds, but afterwards put forth large branches, and become a great tree; till, in another instant, the heart is cleaned from all sin, and filled with pure love to God and man”.

51. *The Works of John Wesley, Journal, Vol. I*(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U.S.A.), 7.

52. Ibid., 509: “But even that love increases more and more, till we grow up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이란 절대적 완전은 아니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나아가 악한 기질에서의 해방의 의미로서 완전이라는 말로 성화론을 더 심화시킨다.

먼저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기 전에, 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하지 못한 문제부터 다룬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무지나 오류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산 사람 치고는 아무도 전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무오하기도 바랄 수 없다. 그들에게서는 이해력이 약하거나 더딘 것, 상상력이 불규칙하게 빠르거나 더딘 것 등의 약점을 지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약점 한 가지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것, 말투가 우아하지 못한 것 등이 있으며, 거기에 말이나 행실에 게재된 이름도 모를 무수한 결함을 덧붙여 풀 수 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러한 약점들을 완전히 면하지 못한다. 그때까지는 유희에서도 아주 면제되기를 바랄 수 없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요한 13:16, 15:10). 이런 의미에서는 땅 위에 절대적 완전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계속적인 성장의 여지를 불허하는 완전은 없는 것이다.⁵³⁾

이렇게 기독교인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을 말하면서, 동시에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교리와 신약에 일관한 정신에 비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결론을 굳히는 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비록 그리스도 안의 찌꺼기라도 누구나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완전하다는 말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기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그는 악한 생각에서

in all things into Him that is our Head; till we attain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53.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정행덕 역, 『그리스도인의 완전』(서울: 전광사, 1979), 24.

벗어난다는 데 대하여 설명한다.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고, 만일 마음이 이미 악하지 않게 되었다면 거기서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마 7:18).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한 기질에서 해방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로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갈 2:20). 이것은 외적인 죄에서뿐 아니라 내적인 죄에서도 구원된 상태를 뚜렷이 나타내는 말이다. 이 상태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말로, 소극적으로는 나의 악한 성질 그 죄의 몸이 멸절된 것으로 표현되었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서, 따라서 온갖 성결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내주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⁵⁴⁾

이러한 성화론의 심화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의 범위는 외면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완전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되 외면적인 죄뿐 아니라 마음속의 죄에서도 구원하신다.⁵⁵⁾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시는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무릇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저마다 영광의 소망이 있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셨으니 그도 교만에서 깨끗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원하셨으니(요 5:30, 마 26:39) 그도 욕망과 제 고집에서 정화되며,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친절하셨으니 그도 보통 의미에서의 분노에서 깨끗이 떠나 있다.

② 완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칭의 후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이다.

54. Ibid., 28-29.

55. Ibid., 29.

그것은 아무리 일러도 칭의보다는 뒤에 오는 것이다. 칭의된 자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6:1). 그것은 늦어도 죽기 이전에는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생존자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빌 3:15).⁵⁶⁾

③ 기독자의 완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완전한 사랑이다(요일 4:8).

절대적인 완전은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은 기독교인을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자로 만든다는 의미도 아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도 무류할 수 없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사랑이 기독자의 완전의 본질이다. 그 불가분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살전 5:16-18).⁵⁷⁾

④ 기독자의 완전은 향상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향상될 수 있다. 극치의 경지에 머문다거나 진보할 수가 없다는 것과는 반대로, 완전해진 자는 전보다 훨씬 빠르게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다.⁵⁸⁾ 그것은 잃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가 허다하다.⁵⁹⁾ 그리고 완전의 전후에는 항상 점진적인 선행이 있다.⁶⁰⁾

56.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6), 114. "It is not so early as justification; for justified persons are to go on unto perfection, Heb. VI, 1. It is not so late as death; for St. Paul speaks of living men that were perfect"(Phil. 3:15).

57. Ibid., 114. "It is perfect love, I John iv, 18. This is the essence of it; its properties, or inseperable fruits, are, rejoicing evermore, praying withing ceasing, and in every thing giving thanks"(I Thess, 5:16, etc).

58. "It is improvable. It is so far from lying in an individual point, from being incapable of increase, that one perfected in love may grow in grace far swifter that he did before." Ibid., 114.

59. "It is amissible, capable of being lost; of which we have numerous instances." Ibid., 114.

60. "It is constantly both preceded and followed by a gradual work." Ibid., 114.

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의 기초를 이신칭의에 둬서 산 신앙의 증거로 본다.

이렇게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교리를 통하여 성화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웨슬리는 믿음과 성화 사이를 산 믿음의 열매를 연결시키는 것을 칼빈의 입장을 추구하였던 모라비안의 지도자 피터 빌러에게서 배웠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죽음을 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까?"라는 웨슬리의 질문에 빌러는 그는 산 믿음의 열매에는 반드시 성결과 행복이 수반된다는 주장을 제시함으로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고 웨슬리는 기록하고 있다. 이때가 올터스게이트 체험(1738년 5월 24일) 두 달 전(1738년 3월 23일)의 일이다.⁶¹⁾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교리의 기초는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교리를 산 신앙의 증거요, 악한 자와의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한 귀한 도구로 본다.⁶²⁾

이렇게 웨슬리는 그의 기독자의 완전교리를 중심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는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이점은 비본질적인 것이다.⁶³⁾

4.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의 본질적 일치

칼빈과 웨슬리는 예정론에 기초한 칭의론과 성화론의 조화를 통하여 산

61. Robert G. Tuttle, Jr., *John Wesley his Life and Theology*(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1978), 김석천 역,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사역」(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1), 232.

62.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I, 32-43 Satans Devices.

63. 칼빈과 웨슬리는 "각각의 처한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의 다른 강조점은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며,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의 공통적인 기반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한상화, op. cit., 197.

믿음(living faith)을 가진 구원교리를 확립한다(요 3:16, 야 2:14-26).

1)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칼빈이 예정교리를 강조한 것은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에 있었다. 그리고 예정교리는 로마서 8:30에 근거하여 칭의론에 직결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기초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칭의론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예정론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예정 교리에 기초하여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성화론을 통하여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빈은 죄 사함을 기초로 하는 칭의와 화해는 3개 장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죄인의 변화(회개와 이에 따르는 중생한 사람의 자기를 부인한 생활)는 8개 장(3-10장)을 할애하고, 죄 사함에 호응하는 성화의 생활(continual progress of justification)은 5개 장(14-18장)을 할애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함으로 결과 되는 회개와 성화의 생활에 관하여 칼빈은 13개 장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칼빈 당시에 이미 루터와 츠빙글리 등 개혁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다만 3개 장을 할애하고(그 중에서 둘째 장은 하나님의 심판 Heavenly Tribunal에 대해서 논한다), 반면에 죄인의 변화와 칭의에 상응하는 선행(good works)의 문제는 많은 핫 이슈였기에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 칼빈은 “회개의 주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지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⁶⁴⁾라고 말한다.

64. “Quia hoc capite probo cognito melius patebit quomodo sola fide iustificatur homo” 재인용; 한철하, “칼빈의 기독교 종교,” 2001년 봄학기 ACTS 교수퇴수회, 2001, 주제강의, 12.

이렇게 칼빈은 칭의를 다루면서도(3개 장), 회개와 성화, 즉 죄인의 변화에 대해서 13개 장을 통하여 진지하게 다룬다. 그러므로 칼빈은 웨슬리의 성화 운동으로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기초를 닦아 놓았다. 즉, 칼빈의 칭의론에 기초한 성화론은 웨슬리의 기독교의 완전교리의 근거가 된다.

칼빈은 제11~13장에서 칭의론을 취급한 데 이어서 제14~18장에서 성화를 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화를 ‘칭의의 계속적 진보’(A continual progress of justification)로서 취급하려는 것은, 성도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하나의 ‘이신득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의 범주 안에서 취급하려는 칼빈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⁶⁵⁾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행함으로는 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sola fide) 됨이 종교개혁 원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행위’에 있어서도 ‘의롭다 함을 받는 일’(Qualis possit esse iustitia; III. 14:1)을 논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행도 필요하다는 로마 측의 주장에 말려드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칼빈은 한편 “오직 믿음”(sola fide)을 주장하면서도, 이제는 행위에 있어서의 의를 논해야 되는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신득의를 잘못 해석하여 행위로는 되지 않으므로(not by works) 어떠한 행위든지 다 좋다는 무율법주의(Antinomianism)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⁶⁶⁾ 에베소 교회의 니콜라 당은 무율법자들이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신 것이다(계 2:6). 성경은 율법주의를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무율법주의의 방종(오늘 한국 교회의 소위 구원파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도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은 복음주의를 제시한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나 칼빈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 하겠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행위는 아무래도 된다는 니콜라 당적인 무의식적 전제가 널리 퍼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불의한

65. Ibid., 17-18.

66. Ibid., 18.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9, 엡 5:5-6). 천국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는 일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 되겠는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그 ‘행위’까지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⁶⁷⁾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선행은 깨끗하지(pure) 못하다. 또 설사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하지, 자랑할 것이 없고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거듭 명백한 사실을 되풀이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선행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신자의 선행론을 제14장에서 제18장까지 다섯 장에 논함으로써 참으로 바른 기독교의 기초를 놓고 있다. 우리는 모라비안적·웨슬리적 참된 신앙 운동, 즉 선행이 따르는 산 신앙 운동이 칼빈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다.⁶⁸⁾

그러므로 웨슬리의 성화론도 칼빈의 영향을 받아 칭의에 기초한 성화를 말한다. 웨슬리는 성화의 어떠한 단계에서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칭의에 의지한다.⁶⁹⁾ 이것이 기독교 경건과 이

67. Ibid., 18.

68. Ibid., 18.

69. “.....take the more earnest heed to hold fast that,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I have done, I am found in him; I am accepted in the Beloved;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as the cause, either in whole or in part, of our justification before God,) but that which is by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O bind this about your neck: Write it upon the table of thy heart. Wear it as a bracelet upon thy arm, as frontlets between thine eyes: “I am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Value and esteem, more and more, that precious truth, “By grace we are saved through faith.” Admire, more and more, the free grace of God, in so loving the world as to give “his only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on

방종교의 경건과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칼빈의 성화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도의 선행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⁷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에 그의 자녀의 표를 또한 허락하신다.⁷¹⁾ 즉, 선행의 은혜가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증거하는 표(sign)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행은 부르심의 열매로서, 이로써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의 근원은 선택(election)에서 찾아야 한다.⁷²⁾ 칼빈은 로마서 8:30을 미리 정하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I,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872-1991), Sermon XLII, Satans Devices, 40.

70. 한철하, “칼빈의 기독교 종교”, 2001년 봄학기 ACTS 교수퇴수회, 주제강의, 18.
71. “We shall look at the first reason later. Now concerning the second, let us briefly explain how what we said above agrees with it: that under God’s judgment we must not put any trust in works, or glory in any esteem of them. The agreement lies in this: that the saints, when it is a question of the founding and establishing of their own salvation, without regard for works turn their eyes solely to God’s goodness. Not only do they betake them-selves to it before all things as to the beginning of blessedness but they repose in it as in the fulfillment of this. A conscience so founded, erected, and established is established also in the consideration of works, so far, that is, as these are testimonies of God dwelling and ruling in us. Inasmuch, therefore, as this reliance upon works’ has no place unless you first cast the whole confidence of your mind upon God’s mercy, it ought not to seem contrary to that upon which it depends. Therefore, when we rule out reliance upon works, we mean only this: that the Christian mind may not be turned back to the merit of works as to a help toward salvation but should rely wholly on the free promise of righteousness. But we do not forbid him from undergirding and strengthening this faith by signs of the divine benevolence toward him. For if, when all the-gifts God has bestowed upon us are called to mind, they are like rays of the divine countenance by which we are illumined to contemplate that supreme much more is this true of the grace of good works, which shows that the Spirit of adoption has been given to us”(cf. Rom. 8:15). Inst., III, 14, 18.

72. Inst., III, 14, : 19. 한철하, “칼빈의 완전주의”, 19.

신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sanctify)고 번역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소급해 올라가야 하고, 그 근원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이 그 선한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은혜를 한층 더하는 의미로 그가 주신 행위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신다. 주께서 그들을 귀히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기꺼이 진정한 순결로 장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또 이런 행위에 붙어 있는 결함과 오점을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같이 선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⁷³⁾

(2) 성화론은 산 신앙(living faith)의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에, 성화론은 산 신앙(living faith)의 내용이다. 따라서 칼빈의 성화론이 선행 운동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앙의 종류가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의 문제이다. 선행이 따르는 산 신앙(living faith)인가,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죽은 신앙인가의 문제이다.⁷⁴⁾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73. Inst., III, 17, 5.

74.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Inst., III, 16, 1.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⁷⁵⁾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의와 거룩함을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⁷⁶⁾

(3) 칼빈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질적인 변화는 율법말씀의 제3사용과 기도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루터(M. Luther)가 율법의 기능에 관하여 주로 고발적인 사용과 정치적 사용을 말한 데 대하여 칼빈은 루터의 해석에 덧붙여 율법의 제3사용을 강조한다. 율법의 고유한 사용에 관련된 율법의 제3사용은, 혹은 율법의 주된 사용은 성령이 이미 내주하여 통치하고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⁷⁷⁾

75. "Why, then, are we justified by faith? Because by faith we grasp Christ's righteousness, by which alone we are reconciled to God. Yet you could not grasp this without at the same time grasping sanctification also. For he "is given unto us for righteousness, wisdom,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I Cor. 1:30). Therefore Christ justifies no one whom he does not at the same time sanctify. These benefits are joined together by an everlasting and indissoluble bond, so that those whom he illumines by his wisdom, he redeems; those whom he redeems, he justifies, those whom he justifies, he sanctifies." Inst., III, 16, 1.

76. Inst., III, 16, 1.

77. "The third and principal use, which pertains more closely to the proper purpose of the law, finds its place among believers in whose hearts the Spirit of God already lives and reigns. For even though they have the law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칭의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후서 3:16~17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칭의된 신앙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율법이 지시하는 완전함을 목표로 달려 운동경기와도 같은 것이다.⁷⁸⁾ 그런데 칼빈에 있어서는 지성과 의지의 전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들의 지성과 의지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케 하여야 한다.⁷⁹⁾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칼빈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특징지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시기 때문이다.⁸⁰⁾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다.⁸¹⁾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⁸²⁾

written and engraved upon their hearts by the finger of God(Jer. 31:33; Heb. 10:16), that is, have been so moved and quickened u(a)through the directing of the Spirit that they long to obey God, they still profit by the law In two ways. …… Again, because we need not only teaching but also exhortation, the sextant of God will also avail himself of this benefit of the law: by frequent meditation upon it to be aroused to obedience, be strengthened in it, and be drawn back from the slippery path of transgression.” Inst., II.vii.12.

78. Inst., II.vii.13.

79. Inst., II.vii.1.

80. Inst., III.vi.3.

81. Inst., III.viii.3-4.

82. Inst., III.xx.3.

2)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성화론 특히 기독교인의 완전교리를 말하면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데서 비롯된 칭의에 기초함을 분명히 한다. 즉,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를 당연시 하면서 그 위에 기독교인의 완전교리를 중심한 성화의 교리를 발전시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 2:26)이라고 산 믿음(living faith)임을 재확인시킨다.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이란 절대적 완전은 아니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나아가 악한 기질에서의 해방의 의미로서 완전이라는 말로 성화론을 전개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가?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무지나 오류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산 사람 치고는 아무도 전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무오하기도 바랄 수 없다. 그들에게서는 이해력이 약하거나 더딘 것, 상상력이 불규칙하게 빠르거나 더딘 것 등의 약점을 지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약점 한 가지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 것, 말투가 우아하지 못한 것 등이 있으며, 거기에 말이나 행실에 계재된 이름도 모를 무수한 결함을 덧붙여 풀 수 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러한 약점들을 완전히 면하지 못한다. 그때까지는 유혹에서도 아주 면제되기를 바랄 수 없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요 13:16, 15:10). 이런 의미에서는 땅 위에 절대적 완전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 지속적인 성장의 여지를 불허하는 완전은 없는 것이다.⁸³⁾

이렇게 기독교인의 불완전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교리와 신약에 일관한 정신에

83.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정행덕 역, 「그리스도인의 완전」(서울: 전광사, 1979), 24.

비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결론을 굳히는 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비록 그리스도 안의 찌꺼기라도 누구나 누리는 영광스런 특권이다. 완전하다는 말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기질에서 벗어나고 하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그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대하여 설명한다.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고, 만일 마음이 이미 악하지 않게 되었다면 거기서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마 7:18).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한 기질에서 해방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갈 2:20). 이것은 외적인 죄에서뿐 아니라 내적인 죄에서도 구원된 상태를 뚜렷이 나타내는 말이다. 이 상태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말로, 소극적으로는 나의 악한 성질 그 죄의 몸이 멸절된 것으로 표현되었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서, 따라서 온갖 성결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내주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⁸⁴⁾

(1)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를 산 신앙의 증거로 본다

웨슬리는 완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칭의 후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일러도 칭의보다는 뒤에 오는 것이다. 칭의된 자가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6:1). 그것은 늦어도 죽기 이전에는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론 생존자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빌 3:15).⁸⁵⁾

84. Ibid., 28-29.

85.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6), 114.

(2)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의 기초를 이신칭의에 둔다

요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에서 초기에 일으킨 운동은 하나님 안에서 양의 표를 받기 위한 도덕적 감화 운동(moral influence movement)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⁸⁶⁾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이신칭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⁸⁷⁾

그후 1737년에 웨슬리 형제는 복음전도회(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를 대표하여 미국원주민선교를 위해 조지아로 떠났다. 미국으로 가는 항해 중에 그리고 조지아에서 웨슬리 형제는 몇몇 모라비안과 성도들을 만났다. 이때 큰 파도 속에서 모라비안들의 확신에 찬 산 신앙(living faith)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웨슬리 자신에게 산 신앙이 없음을 회개한다.⁸⁸⁾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여서도 모라비안 교회 목사인 스팅겐베르크(Spangenberg)의 도움을 받는다.⁸⁹⁾ 미국에서 영국으로 1738년 귀국한 후

86.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Journals vol. I*(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7.

87. Ibid., 10.

88. Ibid., 21.

89. 1736년 2월 6일 나는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곳은 타이비(Tybee)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으며, 오글레도프는 우리를 거기서 사바나로 인도했다. 우리는 땅땅대해에 거의 두 달 동안 있었다. 찰스가 오글레도프의 비서 겸 거주민들을 위한 목회자로 일하기 위해 프레데리카(Frederica; 사바나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를 향해 출발하기 전, 그리고 내가 사바나로 향하기 전 여전히 작은 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스팅겐베르크(Spangenberg)에게 소개되었는데, 그는 오글레도프가 사바나에서 다시 데려온 모라비안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나에게 심어 준 인상은 무엇이냐고 말하기 어려웠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그는 성령의 증거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나는 그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신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 놀라고 당황해서 무엇이냐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계속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잠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응답했다. “그렇지만 그가 당신을 구원했음을 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자신을 아십니까?” 나는 답했다. “나는 나를 압니다.” 그러나

에 요한 웨슬리는 5월 24일에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가진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중의 한 내용을 들으면서 신앙의 성령님이 임하심을 체험하였다. 이 사건은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은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영국의 정치가)가 땅과 바다에서 이룬 모든 승리보다 영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었다.⁹⁰⁾ 그가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하기 전 몇 달 동안은 피터 빌러(Peter Bohler)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와 준비의 기간이었다. 이제까지 웨슬리는 기독교를 통하여 바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⁹¹⁾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다.⁹²⁾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고,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à Kempis)의 자연신학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제의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창조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 이때 찰스 웨슬리도 “진정으로 살아 있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빌러를 통하여 받아들인다.⁹³⁾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신도회 모임에서 결정적인 신앙체험을 한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Epistle to the Romans)에 있는 믿음에 관련된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의

나는 그것이 빈말이었음이 두려웠다. 이 만남의 중요성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나게 되었다. 루트와 옥스퍼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자기 부정으로 포장된 훈련을 여전히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식적 합일로 인도할지도 모를 완전한 자기 완성을 위해 오랫동안 힘겹게 싸웠다. Robert G. Tuttle, Jr., *John Wesley his Life and Theology*(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1978; 김석천 역,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사역』(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1), 163.

90. Lion Publishing ed., *The History of Christianity*(Lion Publishing, 1977); 송광택 역, 『교회사 핸드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447.

91. *Journal*, vol. I, 463. Robert G. Tuttle, Jr., *John Wesley his Life and Theology*(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김석천 역,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사역』(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1), 463. 재인용.

92. *Journal*, vol. I, 455. Robert G. Tuttle, Jr., *Ibid.*, 236. 재인용.

93. *Journal*, vol. I, 459. Robert G. Tuttle, Jr., *Ibid.*, 237. 재인용.

기적을 체험하였다.⁹⁴⁾ 웨슬리는 변화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증하며 승리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았다.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⁹⁵⁾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근원임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 웨슬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신앙(이신칭의)에 기초하여 산 신앙(living faith)으로서의 기독교자의 완전교리를 지식을 넘어서서 체험하고 이를 악한 사단의 꾀계를 물리치며 생활에 적용시킨다.⁹⁶⁾

이렇게 웨슬리는 기독교자의 완전교리를 통하여 성화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웨슬리는 믿음과 성화 사이를 산 믿음의 열매를 연결시키는 것을 칼빈의

94.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셨다.” *Journal*, vol. I, 476. Robert G. Tuttle, Jr., *Ibid.*, 253. 재인용.

95. “구원하는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이나 마귀의 믿음 이상의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것, 차갑고 생명력 없는 동의나, 머리 속에서 나오는 일련의 생각들 이상의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공로의 필요성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마음의 기질이다. …… 구원하는 믿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죄책과 공포로부터의 구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이다. 성령을 또한 그들의 영광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Works*, vol. V, 9-10. Robert G. Tuttle, Jr., *Ibid.*, 256. 재인용.

96. 하나님은 기록하시나 너는 기록하지 않다. 기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 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사단이 도전해 올 때 …… 의롭다 함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 요한복음 3:16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단을 물리치라. …… take the more earnest heed to hold fast that,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I have done, I am found in him; I am accepted in the Beloved;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as the cause, either in whole or in part, of our justification before God,) but that which is by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O bind this about your neck: Write it upon the table of thy heart. Wear it as a bracelet upon thy arm, as frontlets between thine eyes: “I am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Peabody: Hendrickson, 1991), Sermon XL II - Satans Devices, 40.

입장을 추구하였던 모라비안의 지도자 피터 벨러에게서 배웠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죽음을 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까?”라는 웨슬리의 질문에 벨러는 그는 산 믿음의 열매, 여기에는 반드시 성결과 행복이 수반된다고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고 웨슬리는 기록하고 있다.⁹⁷⁾

웨슬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완전교리의 기초는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다고 말한다.

3)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의 본질적 일치

이렇게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두고 그 강조점이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에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은 칼빈과 웨슬리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두기 때문이다.⁹⁸⁾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데 칼빈과 웨슬리 모두 일치한다.

(1) 칼빈과 웨슬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 : 23)라는 말씀은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의 출발점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가장된 죄인인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

97. Robert G. Tuttle, Jr., *John Wesley his Life and Theology*(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1978), 김석천 역, 『존 웨슬리 그의 생애와 사역』(서울 : 도서출판 세복, 2001), 232.

98.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VIII ; Modern Christianity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10), 566-567.

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롬 3 : 24). 칼빈과 웨슬리가 모두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적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다. 즉, 바울의 선언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3 : 28)는 말씀에 확고히 서 있다.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 따라서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⁹⁹⁾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 율법의 의에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의에 의지하는 지혜를 강조한다. 웨슬리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그리고 한 점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칼빈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세 가지 이유로 증명한다.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끝까지 완전하게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둘째,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순결해야 하는데 언제나 불순한 마음이 개입되어 있다. 셋째, 만일 그와 같이 순결한 마음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은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아무 칭찬이나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칼빈은 지적한 바 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기 전(칭의 이전)에 행한 모든 선행은 사실상 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죄악이라고 웨슬리는 결론짓는다.¹⁰⁰⁾

(2) 칼빈과 웨슬리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두 가지 공리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칼빈과 함께 웨슬리도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두 가지 공리 위에

99. 한철하, “Calvin의 완전주의,” 광신대학교 공개강좌, 2000년 5월 12일, 4.

100. 한철하, Ibid., 5-6. 재인용 “all works done before justification are not good, forasmuch as they spring not of faith in Jesus Christ ; yea, rather, for that they are not, done as God hath willed and commanded them to be done, we doubt not but they have the nature of sin”(V/59).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웨슬리는 멸망의 실제성과 보편성(모두 멸망)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 : 23). 모든 인류가 함축된 아담은 자유롭게 선보다 악을 택하였다. 그는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택하였다. 그는 피임을 받지 않았으나(딤후 2 : 4) 알면서 일부러 그의 아버지와 그의 왕을 반역하였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렸고 부분적으로 본성적 형상도 잃었다. 그는 기록하지 않게 되었고 불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고통, 질병,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¹⁰¹⁾ 온 세계 인류를 덮고 있는 이러한 죄와 멸망의 현상은 실제적이며 모든 것들이 소멸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¹⁰²⁾

둘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죄 없다 하시는 은혜(죄 사함)를 주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얻게 되는 복음이다.

101. <Adam, in whom all mankind were then contained, freely preferred evil to good. He chose to do his own will, rather than the will of his Creator. He “was not deceived,” but knowingly and deliberately rebelled against his Father and his King. In that moment he lost the moral image of God, and, in part, the natural : He commenced unholy, foolish, and unhappy. And “in Adam all died :” He entitled all his posterity to error, guilt, sorrow, fear, pain, diseases, and death.> The Works of John Wesley, 3rd. edition, vol. VI, (Peabody : Hendrickson Publishers, U.S.A.), 223-(6) Sermon LVII. “The Fall of Man”.

102. “How exactly does matter of fact, do all things round us, even the face of the whole world, agree with this account! Open your eyes! Look round you! See darkness that may be felt ; see ignorance and error ; see vice in ten thousand forms ; see consciousness of guilt, fear, sorrow, shame, remorse, covering the face of the earth! See misery, the daughter of sin. See, on every side, sickness and pain, inhabitants of every nation under heaven ; driving on the poor, helpless sons of men, in every age, to the gates of death! So they have done well nig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So they will do, till the consummation of all things”. Ibid., 223-(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와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우리와 모든 죄를 위한 치유 방법이 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하여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의 타락(부패)을 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고(살전 4 : 8), 우리를 지식과 그의 근원적인 모습 안에서 새롭게 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명철함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모든 지식들과 함께 열어 주셨다. 그것도 그의 도덕적인 모습들, 즉 의로움과 참거룩함 안에서 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롬 8 : 28)을 깨닫게 된다.¹⁰³⁾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

103. <But can the Creator despise the work of his own hands? Surely that is impossible! Hath he not then, seeing he alone is able, provided a remedy for all these evils? Yea, verily he hath! And a sufficient remedy ; every way adequate to the disease. He hath fulfilled his word : He hath given “the seed of the woman to bruise the serpent’s head.” ……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Here is a remedy provided for all our guilt : He “bore all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And “if any one have sinned,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And here is a remedy for all our disease, all the corruption of our nature. For God hath also, through the intercession of his Son, given us his Holy Spirit, to renew us both “in knowledge,” in his natural image ; …… opening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and enlightening us with all such knowledge as is requisite to our pleasing God ; …… and also in his moral image, namely,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And supposing this is done, we know that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our good.” We know by happy experience, that all natural evils change their nature and turn to good ; that sorrow, sickness, pain, will all prove medicines, to heal our spiritual sickness. They will all be to our profit ; will all tend to our unspeakable advantage ; making us more largely “partakers of his holiness,” while we remain on earth ; adding so many stars to that crown which is reserved in heaven for us.> Ibid., 223-(8).

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 24).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진리였고, 실제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롬 4 : 25).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 : 15-16)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또 전체이다.¹⁰⁴⁾

이렇게 칼빈과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도, 신앙과 신학의 목표를 구원에 둔다는 점에서 본질적 일치점을 이룬다.

5. 맺음말

구원의 생명력을 상실한 신학을 선택한 기독교 서양제국이 주도하는 세계는 평화가 파괴되고 생명이 총체적으로 위협받는 시대를 맞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사상은 아무리 그 체계가 논리적이거나 화려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다. 19세기 전반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양 제국들은 19세기 후반에는 식민지주의(Colonialism)에 입각한 제국건설에 나선다. 그 결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서양제국들의 식민지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서양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앞잡이로 이용된 일본에 의해 36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겼고, 해방 후에도 강대국들의 전략거점 논리에 의하여 남북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은 무상의 노동력을 위하여 노예사냥에

104. 한철하 편, 「우리의 신앙」(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9), 30.

나섰다. 서부 아프리카에서만도 2000만 명의 젊은 남녀들이 노예로 생포되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신매매 되어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살아 있어서 20세기에는 역사심판에 해당하는 세계 제 1, 2차 대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땅 끝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인신매매에 대한 역사 심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이르러 18세기 이래 배도의 길을 걷는 서양 제국들의 악행을 부러워하고 서양제국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나라들이 세계 도처에 생겨나고 있는 현상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서양의 비극의 책임은 시대사조에 영합한 신학의 변질에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기독교 제국이 오늘의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18세기에 서양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칸트를 비롯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도의 신학노선을 취했기 때문이다. 같은 18세기에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신앙부흥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칸트의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칸트는 당시 교회로부터 그의 ‘종교론’(Reden über die Religion)을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형식적이나마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교수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을 신학에 접목시킨 쉴라이어 마허(F. Schleiermacher, 1758-1834),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불신앙적인 신학 운동은 더욱 과격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파괴 운동은 1901년에 하르낙(Adolf von Harnack)의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로 총괄된다고 본다. 하르낙이 가르치려는 것은 사도신경의 기독교는 바울의 헬라 철학사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잘못된 기독교라는 것이다.¹⁰⁵⁾ 이 책은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팔려 나갔다. 그러므로 서양교회와 신학대학은 20세기 초에

105. Adolf von Harnack, *What is Christinty?*, translated by Thomas Bailey Saunders, (Harper & Brothers, 1957), 152-189.

시작해서 100년 동안을 사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믿지 않도록 교육받아 온 셈이다.¹⁰⁶⁾

그 결과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주동세력이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주도권을 부여받은(과거의 신앙과 순종함으로 받은 복으로) 서양 기독교 제국들은 세계에 나가 노예사냥과 식민지 쟁탈,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19세기, 20세기를 채웠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서양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범죄하여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인간은 생명이신 성령님을 떠나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선행과 윤리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생명 없는 인간 중심의 사상은 오히려 세계를 생명말살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상은 인류의 평화를 파괴한다.
-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지 않는 신학은 거짓된 사상이다.
- 성경 말씀에 가감하는 신학은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릇된 신학사조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음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세계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성경적인 구원신학의 회복에 있다.

우리는 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바로 인도하는 기초임을 알 수 있다. 신학이 변질되어 그 생명력을 상실하므로 국가가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국가의 번영을 세계정복과 인신매매에 악용한 변질된 서양 기독교 국가들에서 보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신학을

106. 한철하, Ibid., 19-20.

바로 세워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서양 교회와 신학계를 각성시켜 생명력 있는 신학과 신앙을 회복하게 한다면 온 세계의 평화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 한반도 통일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구원신학 회복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된다.

- 하나님을 정의하는 신학이 요청된다.
- 인간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산 믿음이어야 한다.
- 성경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신학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학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재현하였고, 18세기에는 웨슬리가 청교도들을 통하여 받아들인 개혁자들의 신학회복 운동의 신학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구약성경에 논의되어 왔고,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 등에서 확증된 바 있다.¹⁰⁷⁾ 그리고 역사적으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간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켜 이해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어느 정도 조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루터는 전적으로 자유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위해 자유케 하는 은혜 없이 인간의 자유는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스팅겐베르그(Spangenberg)와 피터 뵐러(Peter Bohler)를 비롯한 모라비안들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자 자신의 확신을 말함으

107.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Archbishop of Constantinople,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송종섭 역, 「크리소스톰 로마서 강해」(서울: 지평서원, 1990), 393-394, 406.

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원관은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서 있다. 칼빈과 웨슬리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 죄인이 의롭다 함(칭의) 받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는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과 구원론의 기초를 이루며 일치한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는 구원론 전개에 있어서 세부적인 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말한다.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신학적 배경은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기 위 함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칼빈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사도들이 말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교부들,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을 예정론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다. 칼빈의 예정 교리는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에 반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관을 성경대로 재확립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구원론은 인간의 책임을 배격하기 위한 논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서 성화론을 강조한다. 웨슬리가 성화론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구원 얻은 만민 믿음의 열매 곧 산 신앙(living faith)를 말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무율법주의에 해당하는 도덕폐기론

(Antinomianism)을 방어하기 위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웨슬리는 성화론을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로 심화시킨다. 이러한 성화론의 심화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완전의 범위는 외면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완전을 의미한다. 둘째, 완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칭의 후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이다. 셋째, 기독교인의 완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완전한 사랑이다(요일 4:8). 넷째, 기독교인의 완전은 향상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섯째,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의 기초를 이신칭의에 둬으로써 산 신앙의 증거로 본다. 이렇게 웨슬리는 그의 기독교인의 완전교리를 중심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리는 위와 같은 비본질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두고 그 강조점이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칼빈과 웨슬리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진리를 구원에 두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데 칼빈과 웨슬리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21세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구원에 두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조화 있게 적용한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을 회개와 개혁을 추구하는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